

로버트 야브리 박사, 요한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 잡힌 삶; 8과, 요한일서, 온전한 믿음. 6장 [4:15-5:15] 필요한 교훈, 7장 [5:16-21] 결론적 훈계

로버트 야브리 박사님의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 잡힌 삶의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8차시, 요한일서, "온전한 믿음"입니다. 6장 [4:15-5:15] 필요한 교훈; 7장 [5:16-21] 결론 훈계.

요한 서신서의 마지막 강의에 이르렀습니다. 요한 서신서에 대해,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처럼 사는 것으로 꽃피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 응답하며, 그것들이 우리 시대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응답합니다.

믿음, 행함, 그리고 사랑은 온전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입니다. 존, 저는 이 강연을, 먼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혹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든 것입니다.

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헌신을 변화시키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그저 생계를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변하며,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방향과 초점을 찾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 즉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오래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라는 핵심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핵심적인 권고,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가인처럼 미워하며 아벨을 죽이지 말라는 그의 경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명령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요한일서에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부분을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비잔틴 시대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장과 절이 생기기 전, 비잔틴 교회는 천 년 동안,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까지도 교회 예배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구분을 따릅니다. 저는 이러한 구분을 따라 가면서 각 구분에서 제가 보는 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섯 장과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이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분한 부분입니다.

저는 모두가 요한일서를 읽었다는 걸 알아요. 간단한 책이죠. 짧은 책이에요.

다섯 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천 년 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 해석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면서 다르게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순서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적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권고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필수적인 가르침,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섯 개의 하위 섹션으로 나뉘는데, A부터 E까지 차례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초대를 받게 되는데, 이 초대는 사실상 선언이며, 그 자체로 뒷받침되는 초대입니다. 요한이 제시하는 보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노란색 부분의 빨간색 글자들을 보세요 . 요한일서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구절들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놀라운 것을 읽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서신에서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부분, 즉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그리고 의미 있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 안에 거하시며, 이는 믿는 자들의 사랑으로 확증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후반부인 16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참된 고백, 곧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분리해서 기독교를 사랑, 서로 사랑, 혹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비롯되는 것을 거듭거듭 봅니다. 이는 다른 하나를 함축하는 것이며, 우리는 결코 이 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포괄적인 부분, 이 필수적인 지시를 살펴볼 때, 우리는 먼저 고백하고, 믿고, 사랑하라는 초대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어 심판 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떠하신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17절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믿는 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심판 날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해집니다 .
우리는 심판에 대해 항상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행하시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의를 지키시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만물은
흥하고 쇠하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사람들의 타락과 연관 짓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을 반복해서
봅니다 . 히브리서처럼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 사랑,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지만, 언젠가는 죽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부정한다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의 유익 중 하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임을 점점 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 B편에서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랑에 대한
칭찬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데서 비롯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보다 더 큰 손길을
내밀으셨습니다. 19절은 아주 간결하고 짧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에서 자라나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지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랑에 대한 훌륭한 찬사 입니다 .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다른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실되게 말하면서 형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에 대한 찬사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신앙에 대한 찬사입니다. 여기에 라틴어 구절을 넣어 보겠습니다.

'채권자로서의 신앙' 이라는 의미의 신앙 칭찬은 라틴어로 '우리가 믿는
신앙', 즉 '나의 신앙', 혹은 '개인적인 신앙' 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다를 또 다른 신앙의 의미와 대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을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난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마 다른 신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이것은 믿음의 관점에서든 모순이고, 사랑의 관점에서든 모순입니다.

무엇보다도 , 믿음은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에서 생겨나 사랑으로 이어지는 동사라는 점에 유의 하십시오 . 사랑하고 , 그것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결정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제 능력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2절과 3절).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고 순종할 때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1절의 '믿음'에서 2절과 3절의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계명들은,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이 바르면 하나님의 계명은 기쁨이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토라 곧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토라와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느니라.

셋째,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여기서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존재의 핵심, 그리고 우리 삶의 전체 지평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세상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현장으로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필요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개인적인 믿음을 권면합니다 .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할 수 있는 가르침, 즉 예수님을 믿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의미에서 믿음을 권면합니다.

이건 fides qua, QUA가 아니라 fides quae , QUAE입니다. 즉,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 제 개인적인 믿음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는 걸까요? 저는 특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특정한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느 정도 정량화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2세기 교회는 오늘날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고백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 매우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입니다 .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 중 몇 가지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이유에 대한 개요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도신경 제3조인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분은 이미 저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어야 합니다 . 믿음에 대한 믿음, 혹은 그저 일반적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신 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신 분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 과 물과 피니,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태어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 증거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증거가 이것이니,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아니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몇 가지 관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6절에 나오는 물과 피, 아마도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 처형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오셨을 것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셨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로써 그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러 오셨고, 피를 흘리시어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둘째,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 이 구절 전체에서 빨간색 글자에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혹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신앙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셋째, 신자들은 이 단락의 선언에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 믿음 안에, 믿는 자로서 제 믿음 안에 존재합니다. 요한은 이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 중 하나는 요한이 여기서 제시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서신의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믿는 바가 바로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돌리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러한 선언에 공감합니다. 만약 공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다듬고, 시야를 넓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분열주의자들이 떠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삼서에서 우리는 디오드레베에 대해 읽습니다. 그는 요한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도적 관점을 강요하려는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변화를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칭찬입니다. 이 교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서로에게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요한일서의 일곱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인 권고이며, 그는 참 하나님과 사기꾼들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인과 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된 죄이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해 많은 글이 쓰여졌지만,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서 정확히 무슨 말이 나오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요한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타당한 적용이나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피할 수 없는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죄를 기억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뿐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지도 몰라요. 만약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구절은 요한이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믿는 자들이 넘어질 것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두 번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들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죄들도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는 불신앙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죄 말입니다.

불법과 같은 죄일 겁니다. 예수님은 죄는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종류의 죄는 죄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극심한 반역입니다. 어쩌면, 이 토론에서 가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부르신 것,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연관성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는 제가 그런 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신자가 알게 되는 모든 죄를 위해 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 끝 부분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일이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면 자신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그 일에 휘말려 스스로 무너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겉으로는 누군가의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거기에 뛰어들어 고칠 때까지 참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도시와 백성을 위해 40년 이상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씨름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이나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연민을 베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과 공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더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쥐게 될 심판에 너무 화가 난 것을 느끼셨는지, "너희가 좀 분리되기를 바란다. 내게로 돌아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로 너무 화가 나 있다."

당신을 속상하게 하는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어떻게 분별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

죽음에 이를 정도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관여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기 전까지는 그들의 죄가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이끌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어떤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잘못은 죄입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실제로 없애주십니다.

모든 죄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죄는 죄고 나도 죄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죄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서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저는 이를 마지막 훈계, 참 하나님, 그리고 사기꾼들의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죄와 죄인들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제가 '뉘는 조류'라고 부르는 것과 그의 마지막 목회적 호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으며, 그것이 그를 보호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보호하시므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 통찰력을 또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되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이 세 구절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아시다시피, 이것들은 일종의 신앙(fides qua) 진술입니다.

이것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쌓을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들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선, 1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보호를 받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보호와 기원도요.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한이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는데 , 그 아는 것이 바로 Z 좌표입니다.

그건 사랑의 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감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리스어 대명사입니다. 'autos' 라는 단어도 있죠 . 이는 단순 지시대명사, 준 지시대명사입니다.

여기 이 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확신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교제의 진정한 기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거나, 팻럭 만찬에 가져가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제의 기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목회 호소, 어린아이들이여, 다시 한번 그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나이 든 신자의 헌신과 헌신 말입니다.

그는 다른 서신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부를 만큼 겸손한 사도적 신자였습니다.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우상 제작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해롭다는 이유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샀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우상' (eidolon)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의 '생각'과 동격어입니다. 상상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다양한 민족과 지역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실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믿었던 영적인 현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그리스어 사전인 바우어, 텐커, 아른트, 킵리치 사전은 이 단어를 실재하지 않는, 따라서 진정으로 환상의 산물인 여러 민족의 신들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는데, 은이나 나무, 금, 돌로 만든 일종의 조형물, 즉 작은 조각상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여기서 조각상에 대해 그렇게 많은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혹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혹은 그가 다섯 장에 걸쳐 경고해 온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상상하는 것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반쯤은 빗나간 것들 말입니다.

옳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것들. 그리고 우리는 헛된 환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종교적 헌신에 우리 자신을 내던집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수년 동안 "나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영성을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아요. 신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도 믿지 않지만, 저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환상이에요.

기분이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요한이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상상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서 온전해짐에 따라 당신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하심,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 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길과 가르침을 따라 걷는 것으로 점점 더 특징지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위대한 목표이자 위대한 진보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상에 사로잡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요한1서를 읽거나 듣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들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변형은 사랑의 표현인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요한은 위조품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남녀로서 지위를 유지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우리 모두의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참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하도록 격려하는 현실 점검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추천합니다. 그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 믿고,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존을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 그 시대와 시대에 지역 사회에 가르쳐 주신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일 하시고, 우리에게 이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시대에 당신께서 부르신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요한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영원토록 기도합니다. 아멘.

로버트 야브러 박사님의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 잡힌 삶의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8차시, 요한일서, "온전한 믿음"입니다. 6장 [4:15-5:15] 필요한 교훈; 7장 [5:16-21] 결론 훈계.